

[기획]

광주일보·전남대 문화예술사업단 공동기획
온누리안 리포트
〈국제결혼 다문화가정〉

광주일보와 전남대 문화예술특성화사업단이 공동기획한 심층탐사 시리즈 '온누리안 리포트'가 연재되는 것과 때를 같이해 최근 우리사회 곳곳에서 이주여성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주·전남 각 자치단체에선 올해 이주여성의 성공적 한국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사회단체·종교단체들도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속속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2부 '남몰래 흐느끼는 그녀들'

<6> 소통이 힘들어요

“한국말 못 알아 듣는다” 특하면 구박

지난 1일 나주시 성북동 나주교회내 나주결혼 이민가족지원센터. 국제결혼으로 나주에 정착한 이주여성 30여명이 난로 주변 책상에 둘러앉아 한글을 익히고 있었다.

“일일 이월 삼월...”가 거겨부터 갖 첫걸음을 시작한 초급반 여성들은 1년 열두 달의 명칭을 강사를 따라 큰 소리로 외었다. 여기저기서 허팔배기 소리가 들리고 발음은 엉성했지만 강사의 입모양을 유심히 보며 따라 하는 표정은 더 없이 진지했다.

중급반에서는 선물을 준비할 때 가족들과 주고 받을 수 있는 '~은 어때요?'의 표현에 털도자와 동화책, 목걸이 등을 바꿔넣는 연습이 한창이었다. 한 건에서는 불러주는 단어를 글자씩 띄박 띄박 써보는 여성들도 있었지만 마음처럼 잘 되지 않는 듯했다.

베트남 출신의 웬옥투(27)씨는 “한국말 너무 어려워요. 발음과 높임말 모든 게 힘들어요”라고 하소연했다.

이 센터의 대표이자 한글교실 강사인 홍기술 목사(결혼이민자지원연대 전남대표)는 “베트남 출신 이민여성들은 '르', '요', '여' 등의 발음을 힘들어 하고 '다리'나 '낮, 낮, 낮' 등 다의어와 동음이의어는 대부분의 이주여성들이 구분하는데 애를 먹는다”고 말했다. 홍 목사는 “부부싸움이나 고부 갈등을 비롯한 국제결혼 가정의 많은 문제

가 의사 소통의 어려움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결혼으로 광주·전남에 정착한 이주여성들이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장벽은 ‘한국어’다. 언어는 인간관계는 물론 부부·가족간 상호 이해의 출발점이지만, 서로 몇 번 만나지도 못한 채 결혼이 이뤄지는데다 한국어를 배울 기회조차 없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사표현 안돼 사소한 오해가 큰 갈등으로
상당수 농사 짓느라 한국어 공부할 시간없어
“행여 달아날라” 가족들이 교육 기회 봉쇄도

한국말을 못하기 때문에 가족간 대화도 부족하고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더 더욱 힘들다. 지난해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최모(37)씨는 “말이 통하지 않아 다루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털어놓았다. 간단히 해결할 문제도 의사전달이 제대로 안돼 오해를 하거나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지난해 전남도의 이주여성 실태조사 결과 시부모와 관계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한국어 의사소통’(22.1%)이었으며, 취업 의지가 있어도 서툰 한국말 때문에 못한 경우가 10.6%에 달했다. 2002년 광주시 여성발전센터 조사에서도 외국인 주부가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문화적 이질감’(45%)과 ‘의사소통의 어려움’(38%) 등으로 나타났다.

이주여성의 서툰 한국어 실력은 자녀교육에도 걸림돌이다. 자녀들의 언어학습에는 어머니와 대화가 가장 큰 영향을 주기 마련인데 한글 구사가 미숙하다보니 2세들도 그런 경우가 적지 않다. 이주여성지원센터나 교회, 대학, 자원봉사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한글교실에서 공부하는 이주여

성들은 그나마 형편이 나은 쪽에 속한다. 상당수는 이주 후 출산과 농사 등 생활인으로 묻혀 지난해. 그러다보니 최소한의 의사표현조차 못한 채 혼자 눈물로 세월을 보내거나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다. 미얀마 출신의 한 이주여성은 “아직도 말이 안통해 서로 오해하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쫓아내는 가족들이 많다”며 “말 때문에 어려움을 주고 차별한다면 한국의 선진국 진입은 멀기만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국어강좌 운영자들은 “이주여성이 교육을 받고자 해도 남편이나 시부모가 행여나 달아날까봐 내보내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교육 기회 자체가 차단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어교육 기관과 인력, 교재도 턱없이 부족하다. 광주·전남에는 4천여명의 이주여성이 있지만 교육시설은 10여곳에 지나지 않으며 대부분은 소규모로 운영된다. 체계적인 한국어교육을 받는 이주여성은 전체의 10% 안팎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어의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재 개발과 교육기관 확충에 정부와 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이주여성의 남편들도 아내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알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한국말 빨리 배워야죠”

지난 1일 나주시의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나주결혼이민가족지원센터가 개설한 한글교실에서 강사의 지도에 따라 한글을 익히고 있다.

■남편 외주로 언어장벽 넘어 팜김투씨

남편과 매일 ‘시장 데이트’
간판·물건 이름 등 익혀
6개월만에 기본대화 가능

나주결혼이민가족지원센터 한글교실 중급반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베트남 출신 팜김투(20)씨는 남편 이영열(44·나주시 송월동)씨의 외조(外助) 덕분에 남몰래 빨리 한국어를 익힐 수 있었다.

이씨는 지난 2005년 11월 결혼 이후 3개월만에 부인과 2세를 위해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건축일로 전업을 했다. 매일 일을 마치면 부인과 함께 나주시내 마트와 시장을 다니며 물건 이름을 하나씩 알려줬다. 이씨는 “이것은 미나리, 저것은 딸기 하면서 한 가지를 20~30회씩 반복해야 했지만 가족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여겼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어 나주시내를 구석 구석 돌아다니며 상점과 병원, 건물의 종류와 간판 이름을 알려줬다. 처음엔 밥그릇과 숟가락 조차 구분하지 못하던 부인은 6개월만에 기본적인 대화 가능할 정도의 수준이 됐다.

이씨는 결혼 전 부인의 모국어인 베트남어를 2000년 정도 익혀 함께 사용하기도 했다. 부인 팜김투씨는 “존댓말이 너무 어려워요”라며 엄살이지만 지금은 한국어로만 대화해도 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한다. 이씨의 다음 목표는 부인이 운전면허를 따도록 하는 것이다. 그는 “한국 생활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가족 모두가 돕는 게 의무 아니겠어요”라며 밝게 웃었다.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 팜김투씨가 남편 이영열씨와 불러주는 한글 단어의 뜻을 설명하고 있다.

대인동삼일부동산
☎(02)223-1140, 5210, 2101-602-2522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
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
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
표적이지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
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있는 저희 부동산
안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우부동산
☎(06)478-6788-7, 011-603-4788
건물매도
·외곽도로변 한일병원부근 대지
120평 약400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7.13억 임대보증
금9억2천4백50만원
·외곽도로변 대지84평 건평 약
300평 지하1층 지상5층 각종
당50평 매매가7억7천5백50
1억3천 원420만원 용지3억

중개법인 리치부동산관리(주)
☎(06)233-8311~3
화순군 남면 대곡리 청송골
담 10,123㎡(3,062평)
농업보후구역
평당 30,000원
시설물:파이프네일하우스
600평(300평×2)
주채 20평
전기시설 설치됨(16KW)
전화 설치됨
절반이상 녹지식재(3년)
현황:평탄한 지형임
(좌측)약300m이상
계곡에 접함
(우측)약300m이상
4m포장도로에 접함
부동산 경제
부동산 투자분석
부동산 재산관리
문중 재산관리
오건교
018-615-3900

첨단월계공인중개사
☎(02)472-4325, 011-604-6205
급매매
첨단 삼소동
첨단인근 30m도로접
1000평 공장·청고부지적합
첨단중심 상업지역
·정부지정상업지역 2000평
·부영·호반·정문부근 145평,
135평
광산구 신창동 급매매
·신창지구 아파트부근 908평
녹지 부지적합
첨단 원동 건물급매
·대지 2145 원동15개 부를3개
짜리1개 보어1천만
원4900만 매여 조정가
첨단 인근 자연·생생녹지
·북구 지야동 30m도로인근
전·후면 도로접 가든, 찻집, 창
고물류공정화적 440평
싼 공장, 창고부지 급매매
·광산구 도천동 하남산단 9번
도로 부근 (550평, 700평,
1100평

국민공인중개사
☎(02)011-635-7939, 010-3114-6103
건물
●9억 8천 빌딩
4100평 건40평 보증금2억4천400만원
●7억9천 빌딩 급매
광산구 서북동 대지270평 건287평
보어1999원 원4500만원
●5억 5천 원동급매
자전동 488평 건200평 보증금1억2천400만원
●13억9천 빌딩 20×10m코너
전면 후면 도로접 보증금2억3000만원
●12억 원동 87만 빌딩부지 30×60m코너
보증금1억 8000만원 포방
●17억1천 원동 빌딩
4140평, 3510평 보증금2억 4000만원
●17억1천 원동 빌딩부지
보증금1억6500원 원7500만원포방
●26억 상업지역 빌딩
4185평 건800평 보증금5억 1800만원
●47억 빌딩
4800평 건1000평 보어10억 원세3000
만원 용지2억 포방
●125억 빌딩 급매
4675평 건6,000평
주요소 전문중개
●9억 주유소 급매
4800평 36m도로변
●11억5천 시외 주유소
가시성남 가시성남 2000평 장사성적
●13억5천 시내 주유소급매
4400평 용지2억 8000만~9000만원
●LPG충전소, 주유소부지
광산구 35×10m코너, 평당2800만원
신개빌리지
병원부지 전문중개
●380평 평당 750만원
●210평 평당 900만원
●550평 평당 650만원
광장 급매
거희동에서 10분 6억7천
대지,1400평 건물 500평
A3000세대 경문 10억 빌딩 급매
대지 2280
보증금1억4,000 원 700만원
이정동 고급원주택
대300평 건 950평 장남한
빌딩 임대
·무림동 송월리 빌딩임대 8층 80
평 평당2000만원 전시효과보증

무등공인중개사
☎(02)383-5221, 011-609-5221
●건물투자
·보증금 35억 원세 3,000만원
(지역최고상권) 매매가 80억
·광명지구 보증금 16억
원세 1,500만원(신축) 매매가 37억
·보증금 8억 원세 400만원
매가 18억
·보증금 1억5천 원세 350만원
매가 7억5천
●땅투자(상무지구)
·900평 평당 900만원
·500평 평당 850만원
·200평 평당 1,100만원
·100평 평당 800만원(사정액임구)
●모텔매매
·상무지구 개실 34개
용지 9억7천 매가 12억
·상무지구 개실 35개
용지 16억 매가 25억
●전원주택부지
·담양고서(영주영주만아울) 715평
평당 35만원
●상기투자(상무지구)
·상가 90평 보7천만원
원세 850만원 매가 10억
●임야(농장)
·광산구 동산동 2만6천평
평당 12만원(전원관리시설있음)
●사무실(상무지구)
·차평동 3층 69평 평당 380만원
●공장,창고 및 기타
·서구 평당 2억, 원세 155평
·덕동평 생산녹지 녹지1,200평
평당 48만원
●기타투자
·현금100억 부지1억5천 수임
보장
★대매물권 접수합니다★

알파공인중개사
☎(02)974-0229, 016-602-9337
상업용건물
●매가: 22억 용지 6.5억
(전남여고 맞은편, 청동로2차)
●매가: 30억 원세 1,200만원
●매가: 4억 원세 9억
보증금 4억 원세 1,700만원
목욕탕건물
●매가: 14억
대지150평 건평220평 용4억
연매출액 2억7천만원
모텔매매
●매가: 6억 3천만
대지66평 건물24개(동구 광산동)
토지매매
●매가: 43억
광동중지(광대 내) 4,700평
●매가: 38억
중심상업지(출판) 1,100평
●매가: 60억
상업용지(상무지구) 700평
●매가: 11억
광리지역(전) 장정 흥원
5,000평 건지 신세, 한옥1채
●매가: 4억 8천만
(광산구 용남동) 일대부지(대)
250평 상가점포용
●중심상업지(출판)
매가: 12천 4억, 100평 3억
●매가: 11억
광산구 비아동, 자연치, 지역(이)
2,400평(공공부지 또는 부지용 최고)
●매가: 7천만원
송정동 용복치신 도로변 대지322평(근
성동,구본리)부근 아파트 1,600세대
●매가: 5천만
북구 장동동 전원주택지 115평
●목욕탕(임대)
첨단지구 아파트 빌딩지역내
보증금 2억, 원세 15만 7천
7~8천만원 연건부지 70평
●첨단국민은행 2층 임대(70평)
평·의원, 화원
★대매물권 접수합니다★

건물
매도
5층 건물
●위치: 동구 대의동 39-1
(전남여고 맞은편, 청동로2차)
●대지: 136평
●건평: 591평
(지하1층~지상5층)
●용도: 학원, 병원,
사무실, 상가 등
●매가: 17억원
(적은 금액으로 매입가능)
3층 건물
●위치: 동구 장동 53
(전남여고 후문 앞,
구MBC건너편)
●대지: 81평
●건평: 172평
(지하1층~지상3층)
●용도: 고시원, 독서실,
학원, 다목적
●매가: 7억원
(수익성 양호함)
-연락처-
010-4610-3763